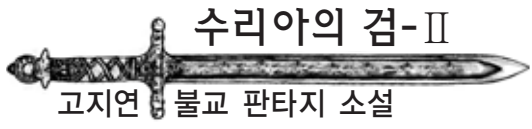


# “난 원래 예언이나 운명 같은 걸 믿지 않네”



## 이야기의 시작 - 운명과 예언 (1)

4년 전, 잠부주 대륙의 서쪽에 위치한 카펠라 마을, 이곳에는 며칠째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이즈음에 이런 날씨는 매우 드물었다. 마을 사람들 모두 농사일을 놓고 각자의 집에서 비가 그치기만을 바라며 지내야 했다. 인적은 물론이요 들판에서 풀을 뜯던 가축들도 보이지 않는 마을은 텅 빈 듯 조용했다. 빗줄기가 세차게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동네를 가득 채울 뿐이었다. 그러나 잠시 후, 그 적막한 풍경 속을 가르며 어딘가로 급하게 뛰어가는 한 소년이 있었다. 비웃도 미처 쟁겨 입지 못할 정도로 급한 용무인지, 그 소년은 온 몸에서 빗물이 흘러내리고 신발이 진흙 속에 푹 빠지는 데도 멈추지 않았다. 이윽고 그 아이가 어느 집 대문 앞에 다다랐다. 잠시 후,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누군가 불평하며 문을 열어주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장난기 어린 큰 눈, 바로 여덟 살의 난다였다.

“아! 비가 이렇게 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일단 집 안으로 친구를 들인 뒤, 난다가 물었다. 그러나 소년은 갑자기 맥이 풀린 듯 금방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울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엉망인 얼굴위로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아무래도 소년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게 분명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여기 좀 빨리 와보세요. 무니가 왔어요.”

비에 흠뻑 젖어 울고 있는 이 소년의 이름은 무니였다. 손자의 외침에 유리 영감이 미처 닦지 못한 젖은 손을 수건으로 닦으며 주방에서 나왔다. 흰 수염이 덩수룩한 그는 까만 피부에 이목구비가 손자와 똑 닮은 노인모습이 커다란 키가 크고 허리가 곧아서 수영과 글씨 패인 주름이 아니라면 청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활기가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아이구. 녀석. 누가 찾아 왔기에 난리인가 했더니 무니가 와 있었구나.”

유리 영감이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애 좀 이상해요.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니 계속 이래요.”

유리 영감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무니에게 다가갔다. 흐느끼던 아이가 소리 내 울기 시작했다.

“아니, 무슨 일이나? 울지 말고 이야기를 해보렴.”

“저희 집에 좀 같이 가주세요. 엄마가 많이 아파요.”

무니는 얼굴에 흐르는 물을 닦아내며 간신히 말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유리 영감은 순식간에 약가방과 비옷을 챙겨 외출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자신을 따라나서려는 아이의 어깨를 잡으려는 듯 말했다.

“무니, 너는 여기 있는 게 좋겠구나.”

“하지만!”  
“내가 이렇게 비에 젖어 다닌 걸 알면, 엄마가 걱정으로 아픈 게 더 심해질지도 모르는데 도 따라나서겠다고?”

유리 영감이 사뭇 장난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이 보통 그런 것처럼 그의 말투에는 사람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줄기가 조금 전보다 더 강해진 거 같았다.

유리 영감이 빗속을 뚫고 집에 도착했을 때 무니의 엄마, 마야는 매우 위독한 상태였다. 온 몸이 풀는 것처럼 뜨거웠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 같았다. 그는 맥을 짚어본 다음, 일단 자신이 가지고 온 루비액에 부엌에서 찾아낸 버찌즙을 타 마야의

문득 위대한 성자, 리시의 예언서가 떠오르며, 어두운 예감이 느껴졌다. 이 마을에 전해져오는 것은 리시 중에서도 가장 정확한 예언을 했다는 아시타의 예언서였다.

“왜 하필 네게 이란...”  
그는 마야의 손을 꼭 쥐며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침대 옆에서 잠박 잠이 들었던 유리 영감

불안해서 아저씨께도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괜찮은 거냐?”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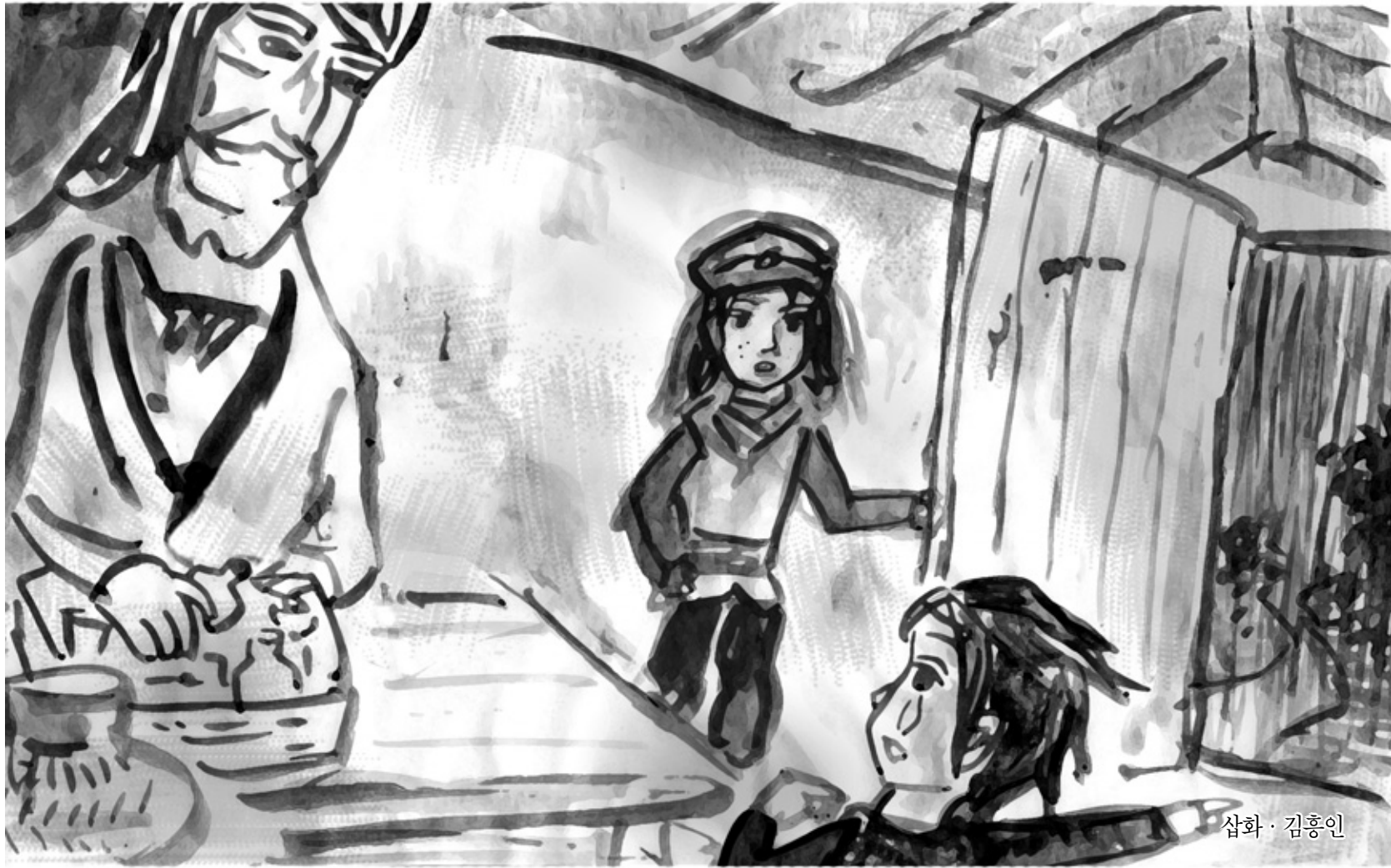
“그런데 무니가 집에 돌아오질 않네요. 아직도 자는 걸까. 어제 많이 놀랐을 거예요. 난다 네 부모님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죠?”

유리 영감은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 부부는 세 달 전 그가 부탁한 책도 구하고 여행도 할 겸 도시로 떠났었다.

“무니에게 난다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똑똑하고 어른스럽고, 언제나 무니를 잘 돌봐주잖아요. 그래서 이번 무니 생일엔 난다에게도 자그만 선물을 함께 줄까 해요.”

마야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난다 녀석, 아주 말쑥쟁이야. 두고 봐. 이제 곧 무니까지 몰들 테니까.”

유리 영감도 마주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어젯밤에 가졌던 불길한 예감이 어쩐지 실현될 것만 같은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삽화 · 김홍인

“맞아.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자주 하는 말 있잖아. 옆에 있으면 거지적거리기만 하디! 그 러니까. 그냥 여기 있어라. 이제 곧 아파가 새기도 날잖아. 마구간 가서 돌마 구경도 하고. 히. 재밌겠지?”

“아서라. 난다야. 아파는 한창 예민할 때니 괜히 자극하지 말고 집 안에만 있도록 하려무나. 절대로 마구간 근처에 가서는 안 돼. 일단 무니 옷부터 같이 입고 따뜻한 걸 좀 주도록 해라.”

난다는 할아버지의 말에 혀를 날름 내밀었다. 유리 영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다시 무니를 위로하며 말했다.

“별 일 없을 게다. 엄마가 괜찮아질 때까지 내가 옆에 있을 테니, 알겠니?”

무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손자에게 다시 한번 무니에 대해 당부한 다음 집을 나섰다. 무니와 난다는 큰 키의 노인이 성큼성큼 걸어가는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걱정스레 바라봤다. 빗

에 흠뻑 젖어 서서히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일단 고비는 넘긴 셈이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이미 폐렴 증상까지 나타난 상태였다. 왜 진작 자신을 부르지 않았을까.

“무니는, 무니는요?”  
눈을 뜬 마야가 힘겨운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집에 난다와 함께 있네. 아무래도 그게 좋을 거 같아서.”

그녀는 이제 안심이라는 듯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아저씨, 저 아무래도 산통이 있는 거 같아요.”

얼굴에 흐르는 땀을 수건으로 닦아주던 유리 영감의 손이 멈췄다. 조금 전 맥을 짚을 때는 전혀 신경 쓰지 못했었다. 그는 다시 맥을 짚어보았다. 확실히 산기가 느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아직도 힘들게 숨을 내쉬고 있는 마야를 내려다봤다. 그녀는 아홉 달 임신 상태로 팔 년을 지내고 있었다.

은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잠에서 깬다. 열어놓은 창문으로는 며칠 만에 보는 햇빛이 눈부시게 들어오고 있었다. 그때 마야가 그를 불렀다.

“아저씨, 일어나셨어요?”

아침을 차리고 있는 마야였다. 부드러운 눈매에 하얗고 투명한 피부, 아직 병색이 남아있긴 했지만 기운을 많이 회복한 것처럼 보였다.

“몸은 이제 괜찮은 거냐?”

“네. 덕분에요. 고마워요, 아저씨. 와서 뭐 좀 드시겠어요?”

유리 영감은 부엌 쪽으로 걸어가며 새삼스레 집안을 둘러봤다. 마야와 무니, 두 모자의 단출한 살림이었다. 그는 의자가 두 개뿐인 조그만 식탁 앞에 앉으며 물었다.

“그래, 산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니?”

마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일주일 전쯤에 한번이요. 그런데 어쩐지 무섭고

그로부터 며칠 후였다. 무니가 폐렴으로 죽었다. 유리 영감이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생일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다. 충격을 받고 다시 쓰러진 마야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무니의 장례는 조촐하게 이뤄졌다. 유해는 마을의 풍습대로 화장해 난다가 산 위에 뿌렸다. 그런 일을 하기엔 어린 나이였지만, 난다가 친구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슬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아서였다. 그렇게 충격과 슬픔 속에 닳새째를 맞이한 아침, 누군가 유리 영감을 찾아왔다. 그가 막 리시의 예언서를 꺼내 읽고 있던 참이었다. 바로 촌장이었다. 그는 유리 영감을 제외하고 리시의 예언서의 존재를 아는 유일한 사람으로, 그 역시 예언서를 다시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한다며 찾아온 것이었다. 유리 영감으로서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문제였다. 그러나 촌장은 예언서의 처음 몇 장만을 자세히 읽어보고는 표지를 덮어 다시 유리 영감에게 건네주었다.

“리시의 예언이 틀릴 수도 있는 걸까요?”  
촌장의 표정이 밝아 보였다.

“난 원래 예언이나 운명 같은 걸 믿지 않네.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일 수는 있겠지. 그러나 자넨 기분이 좋아 보이는군. 혹 무니가 죽었다는 사실 때문인가.”

“그렇 리가요?”  
“그래?”

촌장이 조금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물론 조금 안심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아이를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늘 예언서의 내용이 걸렸거든요. 이제와 돌이켜보니 오히려 무니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 정도입니다.”

“마음의 흐름이 묘하군.”

“하지만 이 아시타라는 리시 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가장 정확한 예언을 했던 인물이라던데요. 이상한 일이군요.”

“정말 묘하군. 이전 예언이 안 맞은 게 거슬린다는 말인가?”

### 수행템플스테이 (깨달은 다이어트)

**진짜!** 머리의 번뇌를 쉬고 입을 쉬고 내장을 쉬는 지혜로운 템플스테이

※ 절, 염불, 독경, 참선, 와선, 행선, 부처님오신날, 알아차림을 완벽하게 배우고 점심을 받으며 실천수행

청견스님 직접 수행교육지도  
잠을 깨고 혼침 줄음 시키며 피로풀고 스트레스 날리고 삼매 깨달음 100% 이해하고 선거나 어디거나 마음챙김 알아차림

● 대상(누구나): 출가예정자, 행사 사미 사미니는 미래불공덕회에서 수련회비 전액 후원  
◆ 수행일정(예약신청)  
6차 3/12 ~ 3/13일 7차 3/19 ~ 3/20일  
8차 4/2 ~ 4/3일 9차 4/16 ~ 4/17일  
10차 5/7 ~ 5/8일 11차 5/14 ~ 5/15일

**법왕정사 부산법당**  
전화 : 051)583-7886  
www.법왕정사.kr(수행템플스테이)참조

### 시)대인불교 일월 조계종 종도를 모십니다

行을 으뜸으로  
靈을 정화하는  
眞 宗도로서  
중책을 맡으실 분을 모십니다.

총본산 : 전북 정읍시 산외면 법화원  
연락처 : 전북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장 원 사  
장원스님 011-677-8525

### (주)더나인 칼라 단청 사업단

# 옷칠 단청

천년보장 옷칠이 꼭 필요한 곳 : 사찰단청, 기존 단청 보호, 사당, 문중재실, 일반한옥, 목조주택.

천년고찰을 꿈꾸는 스님에게만 옷칠 단청의 혜택을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단청은 밀포, 아교, 포리졸을 사용한 화학 재료기법으로 공해는 물론 방충, 방습, 방염의 천적으로부터 보존·보호 능력이 전혀 없어 3년 단위로 방충제, 방염제를 살포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옷칠 단청기법은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완전 해결해 줌으로 천년을 보장하는 친환경 천연 칠로서 목재보호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불화의 맥을 이은 금호, 보은, 일섭, 유일스님 문종의 수석만제자

**불광미술원** 단청, 탕화, 개금 3절장인 만성조기환 010-6426-2563 (042)254-2567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178-4